

2006년 8월
경영학석사학위논문

우리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신 현 태

우리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Marketing Channel
Structure of Korean Wheat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신 현 태

우리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황 인 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신 현 태

신현태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5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방법 및 구성	2
II. 우리밀의 개념적 고찰과 유통현황	4
1. 우리밀의 개념과 특성	4
1) 우리밀의 개념	4
2) 우리밀의 특성	6
3) 우리밀의 현황	12
2.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취지 및 걸어온 길	17
1) 우리밀 살리기 운동 취지 및 배경	17
2)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역사	19
3)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성과와 한계	22
4) 우리밀의 공익적 효과와 전망	24
3. 농산물 유통의 역할과 체계	28
1) 농업 발전과 농산물 유통의 역할	28
2) 농업발전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29
3)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와 함축성	30
III. 우리밀 유통상의 문제와 과제	36
1. 우리밀의 유통과 이에 따른 문제점	36
1) 우리밀의 생산실태와 문제	36

2) 우리밀의 수매, 보관상의 문제	38
3) 우리밀의 가공상의 문제	39
4) 우리밀의 유통상의 문제	41
5) 우리밀의 소비상의 문제	44
2. 우리밀의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49
1) 우리밀 유통의 발전방향	49
(1) 자본력 확보	49
(2) 새로운 마케팅 기법의 도입	49
(3) 소비자의 의식 및 욕구 변화에 대한 대처	50
(4) 우리밀의 그린화 전략과 기업의 위상확립	51
(5) 정부의 우리밀 정책에 대한 대처와 식량자급율 제고 촉구	52
2) 우리밀 안정적 생산을 방안과 정책제언	52
(1)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방안	52
(2) 우리밀의 확대 재배를 위한 정책제언	53
IV. 결론	56
참고문헌	58

표 목 차

<표 1> 밀의 생육한계 구분	8
<표 2> 밀의 일반성분 (가식부분 100g당)	10
<표 3> 년도별 우리밀 재배 및 생산량 통계자료	13
<표 4> 맥류 재배의 환경정화 및 보전 효과	25
<표 5>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28
<표 6> 2003~2004년산 우리밀 협약 및 인수현황	37
<표 7> 국내산 밀과 수입산 밀가루의 가격 비교	42
<표 8> 우리밀 생산업체별 브랜드 명	43
<표 9>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도의 변화추이	44
<표 10> 년도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매출대비 결손액	48

그림 목 차

<그림 1> 가격대와 종합적 상품구색을 갖춘 업체	46
-----------------------------------	----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Marketing Channel Structure of Korean Wheat

Hyun-Tae, Sin

Advisor : Prof. In-Chang Hwang,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what the problems are during the distribution proces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of Korean wheat and contribute to activation of Korean wheat revival movement after being made a alternative plan. This study also means to urge the Government to make constructive efforts and policy endorsements for our peoples lifeline, food whose self-supporting rate is ultimately declining to around 25%, through improving distribution structure of Korean wheat which can be consumed as a second and healthy food and inspiring consumers with confidence on Korean wheat.

Although the interest and consumption for the Korean wheat which is intimate-environmental farm produce have been increased because of being abreast of well-being era,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Korean wheat are relatively still fragile in real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alternative plan against the increased import opening barri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rural revival, and to find out a solution to how to coexist with rural and urban community as well, after

being understood where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wheat is, being induced healthy food production and its consumption, being examined on the inconsistency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being researched and compensated for marketing techniques of Korean wheat

The chapter 1 in this study deals with the necessity, purpose, method, and constitution of the study. The chapter 2 deals with concept readjustment, character for the Korean wheat and, in general,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n wheat revival movement so far. The chapter 3 takes care of problems on production, grain storage, processing, sale, and so on as well as distribution organization and system of Korean wheat. Moreover, this study is try to find out the way to minimize unnecessary energy consumption and finance waste occurring in the distribution process after being considered and readjusted an alternative pla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4년 우리밀에 대한 정부 수매가 중단된 이후 우리밀은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종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밀을 정부의 지원없이 민간주도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우리밀 살리기의 길을 걸어 온지 15년이 넘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은 신품종의 개발과 함께 소비확대를 위한 제품의 다양화, 그리고 가공과 유통체계를 갖춘 틀들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의식속에도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음을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밀의 생산과 보관, 가공, 유통 등의 단계를 되짚어 볼 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밀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모색을 통하여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밀에 대하여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밀이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25%대에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식량자급률에 대하여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밀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온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WTO협상 결과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쌀수입 개방 비준에 의해 수입쌀이 시판에 들어갔다. 이는 한·미 FTA와 함께 한국농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미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현실과 풍전등화에 놓인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우리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농산물인 우리밀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마케팅과 유통구조에 있어서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다. 우리밀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과정에서 발생되어 있는 유통구조의 모순에 대한 점검과 우리밀에 알맞는 마케팅 기법을 연구 보완함으로써 높아 가는 수입개방 장벽에 대한 대안을 찾고 생명살림의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자료제공과 함께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생명의 모태인 농업, 농촌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우리밀에 대하여 포괄적인 범위에서 제반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리고 우리밀의 생산, 보관, 가공, 판매 등 제반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토대로 향후 유통구조의 개선과 마케팅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밀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과 구성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II 장에서는 우리밀에 대한 개념정리와 특성,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밀살리기 운동의 현황에 대하여 큰틀에서 다루었고 이어서 III 장에서는 우리밀의 유통조직 및 체계속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생산, 알곡보관, 가공, 판매 등 단계

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리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필요한 역량과 재정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VI장에서는 결론으로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확대 재배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생산의 안정화와 유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우리밀의 개념적 고찰과 유통현황

1. 우리밀의 개념과 특성

1) 우리밀의 개념

밀은 Gramineae(Poaceae)과에 속하는 Triticum속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작물중의 하나이다.

밀은 길고 날씬한 잎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품종은 줄기가 비었으며 이삭은 20개에서 많게는 100개의 꽃을 가지고 있다. 소수(spikelet)에는 2개에서 많게는 6개의 꽃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한 소수당 2개에서 3개의 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밀의 사용 목적은 빵, 국수, 케익, 크래커 등 다양한데 그중 Triticum aestivum은 빵이나 국수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Triticum durum 스파게티나 마카로니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작물인데 1년에 우리국민 1인당 약 30kg이상을 국가적으로는 약 400만톤 정도가 소비되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 밀의 재배면적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¹⁾

토종 우리밀인 앓은뱅이밀에 대하여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앓은뱅이밀은 우리에게서 잊혀진 식물이며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앓은뱅이밀처럼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품종들이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에 의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라져 가고 있다.

앓은뱅이밀은 키가 작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경남지역을 비롯해 경북, 충남, 경기지역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900년대 초까지 재배된 품종이며, 평균키가 70~80cm에 불과하여 붙여진 한국 고유의 우리 품종이자 우

1) <http://crop.nics.go.kr/main.asp?ran=68698&m=6&s1=34&s2=0>, 호남농업연구소 작물과학원 nics online 홈페이지 작물정보센터.

리 종자다.

한일합방전인 1904년, 일본인 교수가 앓은뱅이 밀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 간 앓은뱅이밀을 활용하여 일본의 달마를 탄생시켰고, 달마는 부친인 후르츠 달마와 모친인 터키 레드를 만나서 세계인들의 기아를 해방시킨 농립10호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²⁾

농립10호는 10ha당 생산량을 기존의 300kg이하이던 것을 1400kg으로 3배 이상 증가시켰으며 현재 세계 밀 재배 면적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다수확 밀 품종의 모체가 우리나라의 앓은뱅이 밀종자가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농립10호는 2차대전후 일본 패망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브로그(Norman E. Borlaug)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브로그박사는 1960년대 농립10호를 모태로 기존의 밀품종에 비해 쓰러짐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게인스품종을 개발하였다. 이 품종은 인도와 파키스탄 국민들을 기아에서 구출하고 녹색혁명을 주도한 품종이 되었다. 브로그박사는 이러한 공로로 1970년 농학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순수 우리 고유종자인 앓은뱅이밀 한 알이 전 세계인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품종이 우수하고 병해에도 잘 견디는 우리 밀 종자가 외국땅에서 품종 개량되고 자라서, 농약과 방부제 투성이인 수입 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우리밀과 앓은뱅이밀은 가을에 파종하기 때문에 거의 농약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방부제 건강식품이며 면역강화물질과 항노화물질이 수입밀보다 풍부한 품종이다.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던 앓은뱅이밀은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에 의해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현재 남해군과 산청, 함양군 등 일부지역에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앓은뱅이밀처럼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적자산인 고유

2) 김무열, 「교실밖 과학이야기 - 한국의 자랑 앓은뱅이 밀」, 전북일보 기사, 2005.

품종들이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경제발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사라져버렸거나 대부분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이 되어버렸다.

이들 품종들의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정보들은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물질을 탐색하고,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이들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국가차원에서 요구되는 현실에 와 있다.

2) 우리밀의 특성

밀은 보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의 하나로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작물로서 신라, 백제시대의 유적 등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각종 음식의 재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밀가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각종 밀가루 가공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즉, 1986년 이후 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400만톤 이상의 외국 밀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식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밀은 주로 가을밀인데, 1920년 경에 일본품종과 재래종이 재배되었고, 이후에 수원85호, 86호 등의 개량종이 보급되었다. 최근에는 조숙, 다수확 품종으로 조광, 다홍밀, 울밀, 수원215호 등의 품종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밀의 수요를 국내 생산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1986년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밀 수입량은 2005년 현재 약 400만톤으로 거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밀은, 예전에는 귀한 곡식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밀은 밀전병, 유밀과 같은 별식이나 간식 등을 만들 때만 쓰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원조의 물결을 타고 질이 좋지 않은 미국산 밀가루가 다량으로 도입되면서 주식 대용으로 쓰이게 되었다. 한때는 정부에서 분식하는 날

을 정해 놓고 밀가루 음식을 먹도록 권장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미국산 원조밀에 의해 우리 식생활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쌀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요즘에는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요구 자체가 빵, 과자 등을 선호하는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밀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밀의 공급을 막연히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밀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외화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키는 이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밀의 성분을 보면 밀은 약 69%의 당질과 약12%의 단백질 그리고 약 2.9%의 지질을 포함하고 있다. 밀 단백질의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복합체로서 물과 반죽하면 끈기가 있는 가소성의 특성이 있으므로 과자 등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한 아미노산은 글루타민산, 프롤린이 많고, 리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S-함유 아미노산은 적다. 비타민은 쌀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쓰임새를 보면 밀은 주로 제분하여 밀가루로 만들어 빵 및 면류(국수류), 과자 등의 제조, 동물의 사료, 된장 등의 원료로 쓰인다. 빵은 주로 밀가루(강력분, 준강력분)에 물, 소금을 가하여 반죽을 한 다음 이것을 빵 효모로 발효시키고, 가열하여 부풀게 한 유럽형과 설탕, 분유, 기름 등의 보조 재료를 섞은 미국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럽형, 미국형 모두 보급되고 있다.

면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과정은 밀가루에 소금과 그 밖의 재료를 섞어 압면한 다음 국수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면류에는 가락국수(우동), 메밀국수 등이 있으며 즉석라면은 증기로 찐 국수를 기름으로 데치거나, 열풍건조하여 녹말이 화한 상태에서 탈수시킨 것이다. 면류를 장기 보존하면 미생물에 의한 부패, 녹말의 노화, 풍미가 감소하기 쉽다. 냉장고에 보존할 필요가 있고, 건조면 또는 즉석 라면류에 있어서도 햇빛이 쬐이지 않는 장소, 온도, 습도가 낮은 장소에 보존하고, 특히 기름의 산화 등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것은 제조일이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 밀은 세계 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식량작물중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농경지가 밀 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며, 밀은 세계 대부분 나라의 주식 작물이다. 또 밀은 월동 작물로서 농업기후지대에 따라서 생육조건이 다르다. <표 1>은 밀의 생육 가능한 한계구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표 1> 밀의 생육한계 구분

구 분	내 용
위도상 밀 생육가능지	- 북위 30~60도 - 남위 27~40도
밀 생육온도	- 최저온도 : 3~4℃ - 최고온도 : 30~32℃ - 최적온도 : 25℃
해발고도에 따른 구분	- 열대 지역에서는 해발 2,000~3200m까지 경작 - 티베트 같은 나라에서는 해발 4,270~4,570m에서 밀을 재배
강수량에 따른 밀 수확량	- 연간 강수량이 760mm 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음 - 635~890mm되는 지역이 그 다음이며 - 635~890mm보다 강수량이 많거나 적은 지역은 수량이 낮은 지역
강수량 분포별 세계 밀재배지대 작부면적비율	- 380mm이하의 지대가 11% - 381~634mm인 지대가 53% - 635~888mm 지대가 22% - 889~1,142mm 지대가 10% - 1,143mm 이상 지대가 4% -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밀 재배지대는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지대가 65%로 가장 많고, 알맞은 지대가 22%, 그리고 과잉지대가 14%임을 알 수 있다.
밀수확시기	- 밀은 세계적으로 보면 1년 내내 수확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수확되는 기간은 4월과 9월 사이이다. - 남반구에서는 10월과 1월 사이에 수확하는 곳도 있으나 그 재배 면적은 작다.

자료원 : <http://crop.nics.go.kr/main.asp?ran=68698&m=6&s1=34&s2=0>,
호남농업연구소 작물과학원 nics online 홈페이지 작물정보센터

동작물인 우리밀도 기상재해에 민감하다.

밀의 재배적 특징을 보면 전작이나 답리작에서 벼나 콩 등의 후작으로 재배되는데 재배기간 중 월동기간이 있어 동해를 받을 기회가 많고 출수기 이후에 강수량이 많아 도복이 우려되며 기온도 급상승하여 걸마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상재해가 타 작물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작물이다. 밀의 기상재해는 동상해, 습해, 한발해, 도복해, 강우해, 병해 및 고온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도복, 습해, 한발해, 한해 및 강우에 의한 수발아 등이 가장 문제시된다.

밀가루는 보통 제빵용, 제과용, 제면용 등의 용도별로 구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강력 밀가루, 준강력 밀가루, 중력 밀가루 및 박력 밀가루로 나눈다. 또한 밀가루의 회분 함량 및 색상에 따라 1등분, 2 등분, 3등분 및 말분으로 나눈다. 밀가루의 등급이 떨어질수록 단백질 및 회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겨층의 혼입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제빵용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과자용은 단백질 함량이 낮으며, 국수용은 중간적인 것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제품은 특유한 성상이 요구되므로 단백질의 질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는 주로 중력 밀가루, 강력 밀가루와 박력 밀가루이다. 중력 밀가루는 제면용과 다목적용으로 쓰이며, 강력 밀가루는 제빵용으로, 박력 밀가루는 제과용으로 쓰인다. 1986년부터 혼합 밀가루와 전립 밀가루가 생산되고 있는데 혼합 밀가루는 제면용으로써 중력 밀가루에 속한다. 전립 밀가루는 밀 전체를 분쇄한 것으로 밀의 껍질에 들어 있는 섬유소나 기타 영양분을 이용하여 건강식용인 특수 제빵, 제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밀의 입자는 배유부 80% ~ 85%, 배어2 ~ 3%, 과피 13% ~ 18%로 구분되며 일반성분은 밀의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성분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 밀의 일반성분 (가식부분 100g당)

성 분	함 량	성 분	함 량
수 분	11.8%	칼 슴	71g
단백질	12.0g	인	390mg
지 질	2.9g	철 분	3.2mg
당 질	699.0g	비타민B1	0.34mg
섬 유	2.5g	비타민B2	0.11mg
화 분	1.8	나이아신	5.0mg

자료원 : <http://blog.naver.com/hhj31?Redirect=Log&logNo=30003940786> 대구 경북우리밀 홈페이지, 우리밀의 일반영양 성분.

밀가루의 주요성분은 열량원이 우수한 식품으로 100g당 약 350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단백질은 쌀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2.0g을 함유하고 있는데, 밀가루에 들어 있는 단백질은 다른 곡물이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밀가루에 물을 첨가하여 반죽하면 끈기있게 결합하여 생기는 글루텐(부질)을 형성하는데 이 물질 때문에 밀가루 반죽이 되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밀가루는 이와 같은 글루텐의 양과 질에 따라 밀가루의 질을 구별하고 가공용도가 달라지게 된다. 대체로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많은 강력분은 제빵용으로 이용하고 중력분은 국수류로, 그리고 박력분은 과자, 케익, 튀김용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밖에 밀가루는 지질도 쌀에 비해 많아서 100g당 2.9g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 인, 철분도 쌀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다. 밀가루의 산도는 무기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산화물과 소량의 유기산에 의한 것인데 위산과 다중이 있는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생목이 오르고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밀가루는 밀기울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구별하는데, 밀기울이 적게 함유된 것일수록 상등급으로 제분율이 높고 회분함량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즉 밀기울이 많이 들어있는 밀가루일수록 나쁜 밀가루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밀기울은 자연이 제공한 최고의 변비 치료약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밀기울이 변비를 없앴과 동시에 치질, 게실증 그리고 결장암의 발병 기회를 대폭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 어린이들 가운데는 변비, 비만, 당뇨병 등의 성인병증세를 호소하는 어린이가 적지 않은데, 이는 밀기울과 같은 섬유질 섭취량이 적은 식생활과도 관련이 있다.

섬유질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변량을 증가시킨다. 이와 함께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도 짧아져 발암물질이 대장의 점막에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대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끼쳐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 섬유질은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1936년에는 토코페롤이 발견되었으며, 밀배아 속에 들어있는 성분중 생식능력과 관계되는 성분이 "토코페롤"이다. 이 토코페롤은 생식능력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반드시 음식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의 일종이라고 하여 비타민E라고 이름을 붙였다.

비타민 E 작용을 요약하면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고 혈전 등이나 암의 원인이 되는 체내의 산화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이러한 비타민E는 밀의 배아에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있는 통밀쌀은 최상의 자연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선택할 때 세가지 가까운 것을 택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다. 즉,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계절이 가까워야 하고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면서 세가지 가까워야 하는 음식물의 법칙을 깨고 자기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국산, 그나마도 기후풍토가 전혀 다른 나라의 것을 즐겨 먹고 있다.

자기고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제일의 식보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지켜왔던 토지이용방식이

깨지면 우리 농토는 점점 쓸모없이 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밀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특징과 일반적인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유전적 특징으로는

첫째, 세계에서 생육기간이 제일 짧은 조숙형이며 둘째, 겨울철 추위에 가장 잘 견디어 1월 평균 영하 14℃이하이면 재배 가능하고, 셋째, 우리나라 토양 모암인 화강암 또는 화강 편마암 등 척박한 땅에도 잘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확기의 장마철에도 다른 곡물보다 이삭에서 싹이 덜 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우리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과중에서 수확까지 노동력이 훨씬 덜 드는 곡물이고 재배가 쉽다는 것과 둘째, 재배범위가 넓고 특히 토양 산도가 5.0~7.0까지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 셋째, 재배기간이 짧고 병충해 발생이 적으며, 넷째,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많고 다른 곡물에 없는 글루텐이 많아 가공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식이성 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외국 무농약 밀가루 가격에 비해 월등히 싼 값(우리밀 2.5달러, 일본산 무농약 5달러, 미국산 무농약 7달러)이라는 것과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세계식량과동의 방과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우리밀의 현황

우리밀의 주요생산지는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전북고창, 경남합천, 함양, 제주도 등지에서 한해 약 7천톤정도 생산되며, 이양은 40kg가마로 환산하면 175,000가마 정도이다.

이는 대략적으로 우리국민이 소비하는 밀가루 소비량의 하루소비하는 양에도 못미치는 양이다. <표 3>은 년도별 우리밀 재배 및 생산량 통계자료를 나타낸다.

<표 3> 년도별 우리밀 재배 및 생산량 통계자료

년도	재배면적 (ha)	단위수량 (톤/ha)	생산량 (톤)	년도	재배면적 (ha)	단위수량 (톤/ha)	생산량 (톤)
1963	83,941	1.60	139,342	1986	1,547	2.94	4,545
1964	89,543	2.12	189,831	1987	1,235	3.02	3,734
1965	92,930	1.98	184,000	1988	753	3.29	2,473
				1989	364	3.09	1,121
				1990	294	3.03	889
1966	93,758	2.06	193,141	1991	178	3.10	551
1967	92,954	2.05	190,557	1992	164	3.37	552
1968	96,505	2.19	211,345	1993	547	2.71	1,483
1969	93,733	2.39	224,023	1994	582	3.70	2,156
1970	96,740	2.26	218,632	1995	2,312	4.44	10,262
1971	86,649	2.27	196,465	1996	2,787	3.92	10,923
1972	62,735	2.38	148,997	1997	1,838	4.04	7,433
1973	43,218	2.31	99,746	1998	1,372	3.48	4,781
1974	36,477	2.03	74,198	1999	1,533	3.67	5,626
1975	43,709	2.22	96,933	2000	919	2.55	2,339
1976	35,721	2.22	81,621	2001	915	3.11	2,841
1977	26,515	1.68	44,661	2002	1,808	3.23	5,834
1978	17,090	2.09	35,705	2003	3,281	3.05	10,011
1979	13,090	3.21	41,980	2004	3,792	3.33	12,623
1980	27,868	3.30	91,956	2005	2,935	3.13	7,496
1981	19,692	2.90	57,128				
1982	19,656	3.35	65,812				
1983	26,446	4.22	111,637				
1984	6,411	2.69	17,237				
1985	3,070	3.43	10,517				

자료원 : <http://crop.nics.go.kr/main.asp?m=6&s1=34&s2=90>, 호남농업연구소 작물과학원 nics online 홈페이지 작물정보센터.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수매가 있었던 1983년까지는 11만톤이었으나, 수매가 중단된 다음해에는 1만7천톤으로 약 1/7정도로 급격한 생산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1991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결성

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2년부터는 우리밀 생산량이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한다. 정부 수매가 중단되고 10년만에 일구어낸 성과였다.

그리고 1995년과 1996년에는 급격한 증가로 40만가마를 넘겼으며 이때까지는 생산과 수매, 가공, 유통에 있어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에 두고 제반의 역할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운영미숙과 어려운 재정상황, 그리고 뒤이어 온 IMF 국가금융위기로 인하여 결국 부도처리되면서 수매와 판매에 있어서 농협중앙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밀 수매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2001년과 2002년 결국 밀알곡 부족사태를 겪게 되고 그동안 만들어 왔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1997년 이후 우리밀 생산과 수매, 가공, 유통구조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하여 진행되어온 수매와 가공유통구조가 변화되어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한살림, 우리밀통상, (주)우리밀, 함양농협, 원주농협, 우리밀 구례공장, 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우리밀 구례공장, 신용협동조합 등 생산과 계약 재배, 그리고 가공과 유통이 다양해지면서 자본주의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³⁾

농협중앙회 수매이후 2001년 2,800톤과 2002년 5,800톤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한 물량부족으로 농협수매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밀살리기운동의 본래 취지보다는 투자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잉여가치가 적은 우리밀에 대하여 큰 이끌림을 갖지 못하고 적잖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우리밀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 홍보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3)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p. 12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생산의 급증과 함께 소비도 회복되었으나 2003년의 경우 경기불황과 우리밀 소비증가 추세가 생산된 물량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밀 재고량은 2001년에 0톤이었던 재고량이 2002년 95톤, 2003년 4766톤, 2004년에 6,646톤으로 누적되었으며 2005년 6월 현재 6,254톤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⁴⁾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계획생산과 조직적인 유통, 그리고 수매단가를 낮추고 수매량을 늘리는 동시에 소비자가를 낮춰 소비를 늘리는 등 정책적인 역할과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원화된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이루어 내기에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속에서 생산농민들을 중심으로 우리밀농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⁵⁾

한국우리밀농협 설립의의를 정리해보면

첫째, 농민들이 WTO의 파고와 쌀 시장 개방요구에 적극 맞서 농민의 소득감소에 따른 대정부 소득보상을 적극 요구함과 동시에 쌀보리 수매축소와 마늘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밀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둘째, 겨울철 재배작목으로서 농약이 필요 없는 고품질 우리밀은 농약투성이의 수입밀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의 살림살이도 보장받기 위함이다.

셋째,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와중에서 우리밀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외화를 절약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식량의 일부분 수입밀이 아닌 우리밀로 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우리밀농협 설립을 통하여 정부

4)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5년 우리밀생산자교육 자료집』 광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005. 12. P. 10.

5) 장종익, “우리밀농협 설립방향과 생산자의 역할” 「변화와 도약을 향한 2002년하반기 우리밀 생산자 워크샵」,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2002. 11. pp.23~24

의 올바른 식량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넷째, 우리밀의 생산과 소비의 증대는 외화절약, 사계절 푸른 들판의 유지, 소비자의 건강권 확보, 농가의 소득증대, 우리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와 정신이 담긴 고향을 느낄 수 있는 1거5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밀과 수입밀의 가격차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우리농민의 고품질 밀의 효율적인 생산,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 관련가공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90년대의 소비자중심의 1차 우리밀살리기운동에서 뿌린 씨앗을 이제 생산자 농민이 앞장서서 거두고 확산시키는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어나가자는 격려와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우리밀농협의 설립에 따른 역할로는 .

첫째, 생산자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출자금을 마련하고 밀알곡 생산의 틀을 안정화시키면서 고품질 밀의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우리밀농협은 안정적인 생산과 수매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우리밀을 필요로 하는 유통, 가공업체와의 교섭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교섭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의 운동이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운동의 방향성은 우리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농협차원의 운동으로 한단계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밀의 가공·유통업체와 소비자조직과 협력하여 우리밀의 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밀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밀 농민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세째, 한국우리밀농협의 출범으로 현재 우리밀 생산라인이 한살림, (주)우리밀, 농협중앙회, 함양농협, 원주농협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통합하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나 가격조정문제, 생산농민에

대한 지원, 정부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우리밀농협의 출범에 따라 우리밀 수매를 안정화시키고 수매대금에 대한 자금력확보로 가공 및 유통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알곡생산량과 유통구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보관시설 확보를 통한 제품의 질 향상과 제품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토대와 주변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취지 및 걸어온 길

1) 우리밀 살리기 운동 취지 및 배경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첫걸음을 내딛던 1991년은 이른바 세계화의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르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외국 농산물에 대하여 완전 개방 직전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농업, 농촌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식량자급도 급락, 이농인구 급증, 농가부채 급증, 유흥경작지 지속적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농지의 황폐화와 공해의 확산, 그리고 생명파괴의 심화 등 이른바 문명병이 도처에서 창궐하고 있던 시기이다.⁶⁾

또한 이 시기는 87년 6.29이후 넓어진 활동공간에 힘입어 부문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였으며, 특히 환경운동과 교육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동 등 전반적인 사회상황이 급변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과 부조리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던 시기였다. 이러한 운동의 다양화와 제반 운동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출범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실천적 행위들

6) 정성현, “우리밀 농협의 방향과 과제” 「2005년도 한국우리밀농협 1차 임운 및 대의원 워크숍 자료」, p.10

이었다.

또한 환경오염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년도별로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1989년 핵발전소문제와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량 발생, 1990년도에 안면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운동과 수차례에 걸쳐 수돗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검출되었다.⁷⁾

1991년에는 두산전자의 낙동강 폐놀유출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급기야 수돗물을 먹은 임산부들이 낙태까지 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동년에 윈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70명이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고 일부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pH가 3.9에 달하는 산성비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들은 그대로 온국민들의 뇌리에 새겨졌으며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토대인 토양이 농약과 중금속으로 죽어가고, 대기는 산성물질로 뒤덮여가는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식생활 구조의 변화와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한살림, 한마음공동체, 생협 등 유기농산물과 관련된 제반의 단체들도 영역을 확대시키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로부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운동들은 우리밀을 선두로 우리콩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 대대적으로 농촌과 연계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취지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⁸⁾

첫째, 생활실천 대안운동으로서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국민건강의 악화, 환경생태계의 극심한 파괴로 농업 농촌이 심각한 붕괴로 치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민과 농민이 힘을 합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자는 운동이다.

7) 김명자, “한국에서의 환경운동의 등장과 전개”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1991). pp. 370~378

8) 정성현, “우리밀 농협의 방향과 과제” 「2005년도 한국우리밀농협 1차 임운 및 대의원 워크숍 자료」, p.10

둘째, 도농공동체운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힘을 합쳐 보람과 이익을 나누며 도농공동체운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셋째, 민족자주 생활운동으로 우리 밥상과 우리 것으로 차려내는 민족자주 생활운동이다.

넷째, 생명운동이다. '죽임'에서 '살림'으로, '파괴'에서 '생명'으로, 죽어 가는 우리 땅과 자연, 농업 농촌 그리고 소중한 밥상을 살리는 '살림과 생명의 큰 숲'을 가꾸어 가는 생명운동이다.

다섯째, 농촌살리기 운동이다. 주름살 깊은 농촌에 희망을 심고, 겨울철 유희지에 농사지을 거리가 없어 묵히는 들녘을 황금물결로 채워내는 고향 살리기 운동이며 삶의 근본인 농촌을 살리는 운동이다.

또한 우리밀을 살리는 방법선택에서도 국민생활을 바꿔내는 실천 대안 운동, 운동과 사업의 통일, 그리고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활동 방법으로 설정하고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출발하게 되었다.

2)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

1984년 정부수매중단과 수입정책에 따른 우리밀 농업의 침체와 위기는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살리기운동이 전개되었다. 국민과 함께 1991년 시작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식량을 위기로 인식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16만명의 회원과 회비 36억원의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거의 없어졌던 우리밀을 83ha에서 2천787ha로 확대시켰고 우리밀자급률을 0.3%까지 올려 놓았다.⁹⁾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가능케 한 것은 시대적 배경과 조직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배경으로는 크게 세가지 요인

9)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pp. 10~11

을 들 수 있다.¹⁰⁾

첫째, 정부의 개방농정에 의해 강요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있었다.

둘째, 먹거리의 절대적 부족현상 탈피에 따른 먹을거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셋째, 낙동강폐놀오염사건, 수돗물 발암성물질(트리할로메탄) 검출, 미국드리마일 원자로 방사능 누출, 소련 체르노빌원자로 폭발 등 환경문제에 따른 국민의식의 확대도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적 배경으로는¹¹⁾

첫째, 생산부문의 농민을 연계할 수 있는 농민조직(가톨릭농민회)이 있었다. 이는 운동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재배해 일반 농민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산부문의 운동가들로 대다수 우리밀 생산자들의 밀집지역이 가동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들과 중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준다. 또한 이분들이 우리밀 생산자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의 토대를 이루었다.

둘째,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 조직이 있었다는 점이다. 소비부문의 빠른 성장과 대사회적 공신력 확보가 가능했던 것은 초창기 갈맷수녀원에서의 우리밀 제병사용 결정과 이를 통한 가톨릭교계의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김승오신부의 순회강연 등을 통하여 가톨릭조직의 통일성에 기초한 기여도가 작용하였다는 것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 초창기 당시 70%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또한 가톨릭교계의 김수환추기경, 각교구 주교 10명, 사제25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신자들을 독려하고 주요 판매처로 성당을 활용함으로써 가톨릭교계 지도자들의 소비부문에 대한 지도적 역할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노조나 교사,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가

10) 맹주형,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와 평가·전망" 『2001년 대의원 총회 및 CIP 발표회 자료집』 (광주: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1), pp. 33 ~ 34

11) 맹주형,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와 평가·전망" 『2001년 대의원 총회 및 CIP 발표회 자료집』 광주: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1.p.33

이루어졌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출범하여 걸어온 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89년 9월,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 생산 부문활동 시작. 84년 정부수매 중단 후 생산 중단 상황에서 경남 고성 두호마을 24농가 1만5백평 우리밀 파종.
- 1991년 5월, 우리밀살리기운동 준비위원회 발족
- 1991년 10월, 전국 65개 마을 25만평에 우리밀 파종으로 생산 본격화
- 1991년 11월 28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창립총회(명동성당 문화관 / 발기인 1,954명 참석)
- 1992년 7월 우리밀 회원 1만명 돌파. 우리밀 7,000가마 수확
- 1992년 9월 우리밀 상표 특허청에 출원, 우리밀 전국생산자위원회 창립(12월)
- 1992년10월 구례 제1공장 완공 생산개시. 전국51개 시군 170만평에 우리밀 파종
- 1993년 1월 회원 3만명 돌파
- 1993년 2월 청와대에 우리밀 밀가루, 국수 납품 시작.
- 1993년 3월 우리밀밭 밟기 행사 개최(전국 10개 지역)
- 1993년 5월 우리밀 사생대회 개최(서울 한강 시민공원)
- 1993년10월 회원 7만명, 출자금 17억원 돌파. 무안제2공장완공 생산 개시
- 1993년11월 전국 420만평에 우리밀 파종
- 1994년 5월 회원 10만명, 출자금 25억원 돌파
- 1994년 6월 천주교 환경대상 수상
- 1994년 7월 우리밀 10만가마 수매
- 1994년 8월 (주)우리밀 사업단 법인 설립
- 1994년10월 전국 60개 군, 840만평에 우리밀 파종
- 1994년11월 국민은행 환경단체 대상 수상
- 1994년12월 아산 제3공장 준공. 생산개시

- 1995년 3월 회원15만명, 출자약정금 35억원 돌파. 우리밀제품 시중 판매
- 1995년 4월 농협중앙회 물류사업본부와 공급계약 체결
- 1995년 6월 한국육종학회 공로상 수상
- 1995년 7월 우리밀 30만가마(40kg) 12,000톤 수매
- 1995년 8월 합천 4공장 완공 생산 개시
- 1995년10월 전국 92개 군, 1000만평에 우리밀 파종
- 1996년 5월, 전국 900개 초등학교 '우리밀살리기운동' 교육 실시
- 1997년 3월, 우리밀밭 밟기 행사(전국 5개 지역), 5월 우리밀 학교급식 실시.
- 1998년 5월, 추억의 밀서리축제 개최(전국 5개 지역)
- 1999년 8월, 우리밀 보리 대축제(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 2000년 우리밀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민운동 확대
- 2002년 7월 24일, 우리밀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 2002년 9~11월. 초등학교 우리밀밭가꾸기사업 실시(전국 350개교 우리밀 밭 조성)
- 2003년 5월, 추억의 밀서리축제 개최(서울 한강둔치 우리밀밭 외 전국 5개 지역)

3)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성과는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가장 큰 성과점은 우리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눈, 밭에서 사라진 우리밀에 대하여 되살림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밀 재배면적이 1970년 96,740ha에서 1975년 43,709ha, 80년 27,868ha, 1984년 정부수매 중단, 1985년 3,000ha, 그리고 1990년에는 294ha, 1992년 164ha로 사라지기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개이후 급속히 재

배면적이 확산되었으며, 1996년 3,667ha(1,110만평)이 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농가에 지급된 수매대금은 262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성과는 생활대안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그러한 전형을 창출하고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존사회에서는 농민운동의 적대적 사회 세력 설정을 통한 활동방식을 극복하고 일상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높은 가치를 달성해 나가는 생활적 대안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¹²⁾ 또한 우리밀살리기운동을 토대로 농업농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운동들에 대한 과급효과가 일어나 운동에 기여하게 된 것도 큰 성과점으로 들 수 있다.

셋째, 우리밀 한마당, 추수감사제, 우리밀밭 밟기, 가족나들이 행사, 밀서리 축제 등 도·농 교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우리밀의 생산토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자주적인 식량 자급계획이나 자급을 확보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생산기반이 민간위주로 확보됨으로서 그 의미와 성과는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한계를 큰틀에서 세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 진행해 왔던 운동들에 비하여 운동성의 약화와 변질을 들 수 있다. 앞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취지에서 정리하였듯이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생산과 가공, 판매의 일원화를 통하여 힘있게 출발하였으나, 운동의 힘은 약해지고 1997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공, 판매는 다양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운동성에 기초한 초기의 설립취지나 의도는 자본력과 자본주의 체제에 의하여 변질되면서 근본에서 일부분 벗어나게 되었다.

둘째, 생산성과 전문성의 느린 전진을 들 수 있다. 우리밀의 생산성은 운동 본부의 설립이후 확장되어 오다가 97년과 2002년까지 생산량이 급감했다.

12) 맹주형,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와 평가·전망" 『2001년 대의원 총회 및 CIP 발표회 자료집』 (광주: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1), pp. 33 ~ 34

2005년 현재 우리밀은 IMF시기인 97년과 비슷한 7000여톤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밀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과 향후 정책적인 대안 등을 만들어내는 전문성은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집중적인 고민과 기존의 성과들을 안고 확대시켜갈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도 운동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 확대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자금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우리밀은 97년까지 수매과정에 알곡대금을 보증으로 대출받고 이자를 지불해 왔다. IMF사태가 빚어지면서 급상승한 금리에 대하여 대응할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2006년 현재에도 자금력에 대한 한계는 진행중에 있다.

4) 우리밀의 공익적 효과와 전망

겨울철 유희농경지 100만 ha에 우리밀을 심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량으로 밀이나 보리를 생산시 식량의 자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을 29.4%에서 52%로 높일 수 있으며 식량용으로만 쓸 경우 54.0%에서 95%로 높일 수 있다.

둘째,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료로 도입되는 56만 톤을 총체 보리로 이용하면 한우와 젓소의 사료를 완전 자급하고도 곡실이 380만 톤이 남게 되므로 1,340만 톤이나 도입되어 900만 톤이 사료로 이용되는 밀, 콩, 옥수수의 사료로서 충당할 수 있고, 구제역과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셋째, 밀을 생산시 400만 톤을 수입하는 데 드는 7억불의 외화 대체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이, 호박, 꽃 등 각종 농산물 수출액이 일년에 10억불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돈임을 알 수 있다.

넷째, CO₂, SO₂ 등 유해 가스의 흡수를 통한 O₂ 생산 등 대기정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맥류는 10월 상순에서 하순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6월 초 중

순에 수확하게 되는 데 이 기간에는 잡초도 자라지 않는 나지(裸地) 상태로 있게 된다. 맥류는 저온에서 발아하여 낮은 온도에도 생육이 잘 되므로 $6\text{CO}_2 + 6\text{H}_2\text{O} \rightarrow \text{C}_6\text{H}_{12}\text{O}_6 + 6\text{O}_2$, 즉 탄산가스와 물을 결합하여 광합성을 하여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산소를 발생하게 하는 등 매우 큰 공익적 기능을 하게 된다.

겨울철 밀과 보리를 재배했을 때 공익적 기능의 효과는 1ha 재배시 CO_2 흡수는 6.13톤, O_2 생산은 4.46톤, SO_2 흡수 1.96톤, 토양 유실 방지 41.4톤, 유기성 폐기물 소화량 3.04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ha당 165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표1은 맥류재배의 환경정화 및 보전효과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기능으로 환산했을때의 가치를 나타낸다.

<표 4> 맥류 재배의 환경 정화 및 보전 효과

	CO_2 흡수	O_2 방출	SO_2 , 흡수	토양유실 감 소	유기성폐기물 소 화 량
양(톤/ha)	6.13	4.46	1.96	41.4	3.04
금액(천원/ha)	147.6	868.4	70.6	503.8	63.5

* ha 당 환경정화 및 보전 기능 평가 금액 : 1,653.9천원

** 최근 보리 10년 평균 정곡 수량 2.54톤/ha를 생산했을 때의 효과

자료원 : 남중현, “농업의 여건변화와 우리의 대응” 「2005년도 한국우리밀농협 1차 임운 및 대의원 워크숍 자료」 p. 38

다섯째, 밀과 보리는 편한 농사로 1인당 재배면적 확대가 쉽다는 점이다. 다른 작물에 비하여 노동력이 적게 들고 시간당 소득이 높다. 즉 파종, 시비 및 수확 등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어 1인당 30ha이상도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촌 노동력이 부녀화 고령화 된 현재에는 한 마을에 한 두 사람 정도 기계를 다룰 수만 있으면 전 농가의 농경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논산시 부적면에서 보리 RPC를 이용한 산물 구매시에는 건조, 조제

등 노력을 줄여 10a에 7.7시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있다.

여섯째, 맥류 농사에는 파종기, 트랙터, 콤바인과 건조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를 재활용함으로써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와 벼의 생산비중 토지용역비를 낮출 수 있다.

일곱째, 밀·보리 농사는 가을철부터 초여름까지 재배하므로 병해충이 적어 농약을 적게 치는 안전한 먹거리이며 겨울철에 녹색초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정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여덟째, 통일에 대비한 식량생산 및 통일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 독일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력이 높은 쪽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다.¹³⁾

최근 북한은 식량증산을 하기 위하여 2모작 면적을 30만ha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7만ha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종도 보리는 미국의 춘파(春播) 품종인 Robust, Stander와 중국의 Red sun3호 등이며, 밀은 국제밀·옥수수연구소(CIMMYT)에서 개발한 봄밀 품종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들 품종은 우리나라의 가을보리보다는 25일, 가을밀보다는 20일 그리고 봄보리보다는 7일 가량 숙기가 늦고 적은성이 낮아 수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잦은 추위, 한발, 기상이변 등에 따라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한에서 겨울철 유희농경지 100만ha를 생산화 한다면 북한에서 보다 기온, 일조, 비료 및 품종개발이 잘 되어 생산기지로서의 효과가 높을 것이며, 일제시대 밀은 황해도, 평안남도에서 전국의 40%가 생산된 바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비가 적어 질 좋은 빵용 밀이 생산되었다는 점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밀 품종들을 공급하면 서로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3) 남중현, “농업의 여건변화와 우리의 대응” 「2005년도 한국우리밀농협 1차 임운 및 대의원 워크숍 자료」, p.39

우리나라의 식량에 대한 자급을 하락은 우리밀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체곡물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고 그 위험성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한 통일후의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식량자급을 확대는 필수적이며, 통일후 증대할 수밖에 없는 통일비용을 일부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농촌현실 속에서 농촌의 빛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촛불로, 현실에 기초한 농민운동과 지역농업 발전 종합계획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전망은 우리밀이 캠페인과 소비자 운동차원에서 그 역할을 한차원 상승시켜 생산자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으로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경영 미숙과 1997년 IMF에 따른 금융위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매 및 유통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로 이관되면서 우리밀의 재배면적이 1천ha로 위축되었고 결국 공급 부족으로 2000년~2001년까지 알곡부족에 따른 유통구조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유통과 소비 구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밀 알곡 생산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2002년 9월부터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되고 2004년 6월4일 발기인대회와 동년 6월17일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8월 24일 농림부인가를 받음으로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우리밀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으나 2,100여농가로 제시되고 있고 한국우리밀농협의 조합원 및 출자금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2005년 11월 30일 현재)

지역	조합원수 (명)	출자좌 수(좌)	출자금액 (원)	재배면적 (평)	평균출자금액 (원)
광 주	367	23,762	178,110,000	958,770	485,313
장 흥	226	4,840	38,470,000	521,416	170,221
고 흥	64	3,150	15,750,000	129,290	246,093
구 레	219	4,530	22,650,000	618,085	103,424
나 주	7	420	2,100,000	16,000	300,000
경 북	7	820	7,360,000	27,100	1,051,428
전 북	347	16,698	85,990,000	1,551,239	247,809
경 남	99	1,980	9,900,000	214,945	100,000
합 계	1,336	56,200	360,330,000	4,177,545	269,708

자료원 : 최강은, “농협의 위치와 지도자의 역할” 「2005년도 제2차 임원 대의원 워크샵 자료집」 pp. 10~12

3. 농산물 유통의 역할과 체계

1) 농업 발전과 농산물 유통의 역할

농민의 손을 떠난 농산물은 검사, 선별, 포장, 저장, 상차(上車), 수송, 가공, 하차(下車)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중간과정,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가 바로 유통부문이다.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농산물 유통부문은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생산부문, 농식품 소비부문 및 일반유통부문과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수출입부문과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는 이른바 유통의 3박자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유통시설, 수송수단, 저장 및 가공시설,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등 하드웨어(hardware)부문, 유통인 조직 및 관련제도 등 소프트

웨어(software)부문, 무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통정보, 유통금융, 표준화 및 등급화, 유통교육, 유통행정 등 유통조성기능이 그것이다.

농업발전과 관련한 농산물유통부문의 바람직한 역할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¹⁴⁾

하나는 생산 및 소비부문의 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유통부문 역시 변화하면서 농업발전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라는 동태적 의미의 효과성(effectiveness)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정태적 의미의 효율성(efficiency)측면으로서 현행 농산물유통체계의 최적운영, 다시 말해서 유통의 3박자를 여하히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며(operating efficiency) 동시에 공정하며 효율적인 가격을 형성케(pricing efficiency)하느냐 라는 것이다.

동태적 개념으로서 효과성과 정태적 의미의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농업발전과 관련한 농산물 유통의 올바른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 하겠다. 이는 곧 유통이 물처럼 자연스레 흘러(流通如水) 생산자 농민, 최종 소비자, 유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농업발전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농업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농산물유통체계를 4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발전단계별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공급측면의 경우 생산의 전문화는 생태조건이 비슷한 지역, 농가의 규모, 계약재배 등을 포함한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등에 의해 점차 확대된다고 한다.

시장접근성은 대농의 경우가 소농에 비해 보다 빨리 확대되고, 생산자조직은 보다 대규모화된 것은 물론 유통전문 협동조합의 탄생, 유통은 물론 가공 및 농업관련서비스까지를 망라하는 농업관련기업 형태로 발전한다고 한다.

14) 김완배, 「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 2005.

농업발전단계에 따라 생산요소시장 역시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데 종자수요의 경우 기존 종자의 반복 사용으로부터 특정의 상업적 목적에 걸맞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패턴은 소득계층이 보다 분화됨에 따라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¹⁵⁾

유통기능과 관련하여 농산물은 지역 내 이동에서 지역간 이동으로 공간적 교환범위가 확대된다. 농업발전이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저장 등을 통해 곡류 등 비부패성 농산물의 계절성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이는 점차 부패성 농산물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농산물의 계절성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거래행위는 신용범위내의 현물시장거래로부터 계약에 의한 거래가 확대되고 선진 발전단계에 이르면 선물시장거래가 도입된다.

농업발전에 따라 거래비용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 지불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선별, 가공 등 추가서비스가 확대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보다 향상되는 것이지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양한 유통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는 점차 증대되어 발전후기에 이르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능가하게 된다.

3)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와 함축성

소비부문에 있어서의 변화가 농산물 유통에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총가계비 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비탄력화 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에 식품소비구조가 고급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을 더하게 되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 또한 전반적으로 비탄력화 됨을 뜻하며 이는 곧 수요의 조그만 변화에도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

15) 김완배, 「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 2005.

16) 김완배, 「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 2005.

같은 수요의 비탄력화 현상은 공급의 비탄력화 현상과 더불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므로 농산물 유통분야 중 가격의 불안정성 완화와 관련한 측면이 앞으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음은 곧 농산물 유통영역 자체가 다양한 품목 및 품질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통대상품목의 주종이 곡류에서 점차 저장성이 낮은 청과물로 이행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제 농산물에 있어서도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생산부문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 고품질화를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단계(예냉, 저장, 선별, 포장, 수송 등)에서의 개선이 요청된다.

셋째,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소비지출증대는 농산물 유통상 가공의 비중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됨을 뜻한다. 동시에 외식업체의 체인화가 확대되면서 구입물량 단위가 확대되고 산지 직구입을 선호하고 있어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및 계약생산체계 활성화가 요청된다.

넷째, 건강식품, 무공해식품 등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증대는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기능 및 추가적인 외부표시(칼로리, 영양소함량,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등)의 강화와 더불어 유기농산물 유통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가격조건에 보다 민감해짐에 따라 소매단계에서 할인점 등 신유통업체의 확대와 더불어 소매유통업체간 치열한 가격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매유통업체는 도매시장보다는 산지로부터의 구매비중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품질 및 규격, 비교적 큰 구매량을 원하는 소매유통업체의 요구에 호응할 수 있는 산지단계에서의 준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대형소매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자칫 낮아지기 쉬운 농민의 거래교섭력

(bargaining power)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소매업체에 의한 산지 직구입 등 후방수직결합(backward vertical integration)의 확대와 종합유통센터 형태의 등장은 기존의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유통형태가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외유통(市場外流通)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유통의 분산화(decentralization)는 도매유통부문의 상대적 축소를 뜻하는데, 이같은 변화속에서 도매유통부문의 생존을 위한 전략은 효율성 추구를 통한 유통비용의 획기적 절감 및 역할구조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형소매유통업체를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소매유통업체의 점포수가 20개 미만일 때는 자체물류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동시에 거래교섭력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므로 물품조달을 벤더 또는 도매유통기구(예 :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점포수가 20개를 넘어 30개 정도가 되면 자체 물류기지 건설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같은 단계가 되면 이들은 산지로 눈을 돌리게 되고 상당한 정도의 물량과 품목 구성을 갖춘 산지주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대형소매유통업체가 우월한 거래교섭력을 갖게 된다. 점포수가 30개를 넘어서게 되면 대형 컨테이너 단위의 거래가 경제성을 갖게 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컨테이너 단위 거래가 일반적인 수입농산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해외시장으로의 물품조달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이론에 따라 우리의 경우를 보면 이마트, 삼성테스코 등은 제 3단계에 진입하여 해외시장(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일본의 대형유통업체인 자스코나 다이에 등의 발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시 우리의 산지로 시선을 돌려보면, 산지농협 유통활성화사업의 초기 국면에서는 수확 후 관리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이루어낸 조합의 경우 판매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형소매유통업체는 이같은 농산물 확보에 서로 매달릴 단계였고 종합유통센터 역시 물량 흡수에 여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유통활성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참여 조합과 물량이 확대되는 반면 몇몇 대규모소매유통업체는 커진 규모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전에 비해 점점 까다로운 조건(예 : 품목구색을 갖춰 보다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기를 원하거나 점차 횡수가 갖아지는 세일기간 중저가 공급을 희망하는 등)을 산지에 대해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상황의 전개는 바로 산지출하조직간(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수집상 등) 판매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농협은 사업연합 혹은 연합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간 사업연합이냐 아니면 광역합병이냐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아무튼 사업연합 방식만으로 대형소매유통업체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에 대응하거나 산지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보다 규모화 된 몇몇의 대형소매유통업체가 해외로 눈을 돌려 물품조달을 계획하고 있고, 산지유통의 개선을 통해 조합들의 물량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함과 동시에 대형소매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을 적절히 견제하는 길은 바로 농협이 소비지에서의 역할 특히 도매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형소매유통업체는 물론 중소규모 소매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여 산지농협의 적체되고 있는 물량을 소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의 도매기능을 대폭 확대토록 함과 동시에 농협유통과 농협중앙회로 이원화된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농협유통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 중기

적으로는 정부 지원 아래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추가 증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입의 전면적 개방 및 유통시장 개방 등 국제환경의 변화가 농산물 유통부문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면¹⁷⁾

첫째,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농산물 유통에 있어 종래의 국내산 농산물을 위주로 한 한줄기 흐름에 수입농산물을 더하여 크게 두줄기 흐름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격, 규격화 및 등급화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상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둘째,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의 확대는 국내농산물 소비의 대체를 촉진시켜 해당 국내농산물의 생산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작목 선택의 폭이 수입개방의 영향이 적은 작목으로 집중하게 되고 수입대체 작목의 개발, 지역간, 작목간 생산조정정책이 미흡할 경우,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국내농산물가격의 폭락이나 폭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¹⁸⁾

셋째,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앞서 언급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현상은 그 동안 농산물 유통부문에서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농산물 검사분야, 특히 수입농산물의 검역분야에 대한 고려가 보다 큰 비중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문호도 보다 더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지금까지 국내에 머물던 유통의 시각을 해외까지 넓혀야 됨을 뜻한다.¹⁹⁾

외국인의 관점에서 기존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점검은 물론 해외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겨냥한 신규 수출전략품목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기호에 걸맞은 품종선택 등 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선별

17) 김완배, 「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 2005.

18) 김완배, 「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 2005.

19) 힐러리 프렌치, “무역과 환경의 화해”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 도서출1판 따남, 1993), pp. 304~307

및 포장, 신선도 유지 및 수송방법, 해외시장에서 판매방법 및 홍보수단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 및 선택이 요청된다.

Ⅲ. 우리밀 유통상의 문제와 과제

1. 우리밀 유통과 이에 따른 문제점

정부에서는 1984년이후 밀 수매를 중단이후 2001년 보리수매 축소를 선언했으며, 최근 FTA협상에 따라 농촌과 농업의 위기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촌을 살리고 국민생존의 기초인 자급식량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식량자급율법제화를 통하여 우리밀이 농민에게는 소득개발 작목으로, 소비자에게는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우리밀 부문에서의 유통시스템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통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품의 질과 양, 획득의 가능성이나 비용, 문화적 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통시스템은 생산시스템과 소비시스템의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시스템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여 유통시스템이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밀의 유통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먼저 생산자의 시각에서 우리밀의 생산실태와 문제를 고찰해 보고, 다음으로 가공을 담당할 수매와 가공담당업체의 입장에서 우리밀의 수매·보관상의 문제를 재인식하고자 하였으며, 뒤이어 가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밀의 유통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소비자의 시각에서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우리밀의 생산실태와 문제

앞에서 제기되었던 우리밀의 생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포괄적인 틀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이후 밀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 3,792ha로 최대면적을 기록했으며, 생산량도 12천톤으로 최대생산을 했으나, 2005년도 면적은 2,935ha로 감소하게 되었다. 즉, 계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에 따라 소비와 생산에 대한 예측이 수치를 통한 관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생산의 적정 규모화가 되어있지 못한 관계로 단가의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입밀에 비하여 일손이 더가고 수확한 알곡이 습도에 민감하고 농약을 치지 않는 관계로 쌀벌레나 바구미가 자주 발생하는 등 수매이전 단계, 그리고 보관단계에 이르기까지 훈증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밀의 생산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입밀의 경우 대규모로 경작하고 있어 소규모의 생산공정에서 단가를 낮출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이다.

셋째, 체계적인 재배 관리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밀에 대한 종자 전염병이나 다른 품종의 혼입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생산된 보급종의 종자에 대한 품질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넷째, 수요 정책에 따른 재고량 증가를 들 수 있다. 생산은 증가했으나 가공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재고량이 누증되어 향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공업체 등 수요처의 2003년산과 2004년산의 우리밀 구매량이 당초 협약물량의 22%에 불과해 2005년 8월말 현재 재고량은 6,033톤에 달하고 있다.

<표 6>에는 2003년~2004년산 까지 누적되고 있는 우리밀 재고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2003~2004년산 우리밀 협약 및 인수현황

(단위: 톤)

년도구분	협약물량	인수량	미인수량
2003년산	2,786	38	2,748
2004년산	4,933	1,648	3,285
계	7,719(100.0)	1,686(21.8)	6,033

자료원 : 최지현, “식량자급률 목표와 우리밀 산업의 정책방향” 「2005년도 제2차 임원 대의원 워크샵 자료집」 p. 22

전반적인 우리밀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급종의 공급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종 및 보급종에 대하여 농림부 해당 규정을 개정해서 국립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생산과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우리밀의 수매, 보관상의 문제

현재 우리농촌의 열악한 현실들은 우리밀의 수매 및 보관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밀 수매시 알곡에 대한 검사는 필수항목이다. 알곡의 상태에 따라 제분율이 달라지고 품질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분함량 초과, 수발아 문제²⁰⁾, 알곡의 굵기 정도, 단일한 품종 여부 등에 따라 제분율 뿐만 아니라 밀가루제품의 성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원료곡으로써 수매시에 매우 세심한 점검과 생산농민들의 주의와 함께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생산농민들과 관련기관들과 우리밀농협을 포함한 수매단체들과 협조와 주의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품종도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분율과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함량검사와 밀의 등급검사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수매하는 밀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매를 하는 다른 단체들의 경우는 국정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물론 제도적인 한계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향후 우리밀소비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관문이다.

다음은 보관상의 문제이다. 수확 후 알곡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20)수발아는 밀이 성숙할 무렵 비를 맞아 서 있는 그대로 알곡에서 싹이 나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밀 생산농민들이 생산한 알곡에 대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현재 지역농협창고를 임대하여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알곡의 보관 또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보관방법과 지역에 따라 여러 단계와 이동을 거치면서 우리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매시 검사비용, 입고비용, 출고비용, 창고임대료, 운반비용, 훈증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수매당시보다 4000원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수매시 1등급은 40kg 한 가마에 보리수매가와 같은 35,690원이고, 2등급은 34,060원이며 등외는 28000원이었다. 40kg 1등급 한 가마가 1년동안 보관창고를 거쳐 제분공장까지 이동되게 되면 약 4,000원의 상승요인이 발생되어 40,000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과정상의 가격상승요인을 점검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 수 있으며,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체적인 보관창고와 밀가루 가공공장, 그리고 제품 보관 창고 확보가 필수적이다.

3) 우리밀의 가공상의 문제

90년대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년에 30만 가마(1가마/40kg)가 생산되고 제1공장 구례, 제2공장 무안, 제3공장 합천, 제4공장 정읍, 제5공장 아산 공장을 비롯하여 가공공장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96년도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경영악화 및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되었고 구례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장 또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원인은 우리 국민의 식량인 밀 350~400만 톤을 수입하여 4~5배 싼값에 가공하여 전 국민의 입맛을 바꾸어 버렸고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대부분

21)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p. 13

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²²⁾

정부의 정책 없이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정신으로 우리 밀의 안정적 생산과 가공 그리고 자금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란 역부족 이었다.

그 실례로 2001년도에는 우리밀의 전국 생산량이 25,000가마/40kg 밖에 되지 않아 우리 밀 원곡이 부족하여 가공 유통에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지금은 한국우리밀농협을 중심으로 광주 광산, 경남 합천, 전남 고흥, 장흥, 구례, 전북 전주, 고창, 정읍 등에서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목적 생산을 하게 되었다.

구례 공장은 92년도에 곡물 분쇄기로 시작하여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1일 4~6톤의 생산체제와 450ha에서 45,000가마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대비 17%를 생산, 가공, 판매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종자의 관리와 생산관리를 통해 원료 곡에서부터 품질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구례의 경우 소비자는 고품질과 다양화 된 제품을 원하고 있으나 공장 증설 17억원, 구매자금 16억원을 비롯하여 외상매출에 대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밀의 다양화된 제품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밀 산업은 정부 정책 없이 농민이 협동체제로 제2식량을 담당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밀의 가공상의 문제를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초시설인 제분시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도 대부분 OEM방식으로 위탁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두뇌조직이나 품질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소 등의 체계를 갖추기에는 현재의 재정적으로나 경쟁 체제속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제분시설이 영세하고 열악한 제분시설로 이는 필연적으로 밀가루 및 가공제품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완제품에 대한 상

22) 최성호, “개방화 시대의 농민의 살길” 「2005년도 우리밀 생산자 교육」, 2005.

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넷째, 밀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으나 연질밀이 대부분이며, 경질밀종류는 거의 없어 다양한 밀제품 생산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다섯째, 수요자의 요구에 미흡한 품질 수준을 들 수 있다. 우리밀의 품질은 그동안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여전히 수입밀에 비해 가공적성이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품질개선은 품종자체의 문제와 수확후 품질관리문제로 구분되는데 품종개발의 방향은 제분율, 단백질 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적성을 높여 가공업체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수확 후 품종 혼입으로 우리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제분시설이 열악해 품질향상에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²³⁾

4) 우리밀의 유통상의 문제

우리밀 유통의 핵심포인트는 소비의 증가이다.

소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밀의 경우 수입밀에 비하여 비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국산 수입밀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라는 관세율로 거의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수입밀에 대하여 관세율 200%를 적용하고, 발생된 관세수입으로 자국밀 농가를 지원하여 외국밀과의 격차를 없애므로써 가격이 수입밀과 같게 하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자국밀을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수입밀을 사용하게 만드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어 정부의 우리밀 정책과 비교되고 있다.

23)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p. 13

24)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5년 우리밀생산자교육 자료집』 광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005. 12. P. 10.

우리밀원곡의 가격은 수입산 밀원곡의 5배가 넘고 있으며, 밀가루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밀이 3배정도 비싸게 판매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데에도 수요확대에 한계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비싼 가격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욕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보리쌀 구매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밀 판매인지도 및 구입경험 이유에서 92%가 우리밀제품 판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입해본 경험은 83%로 나타났다.²⁵⁾

구체적으로 우리밀 가공품을 계속 구입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78%가 구입하겠다고 응답했고,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22%로 나타났다. 구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가 46%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맛이 없어서가 28% 순으로 나왔다. 이는 우리밀이 소비자들에 의하여 선택받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소비자의 입맛에 다가갈 수 있는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7>에는 국내산 밀원곡 수매가격과 밀가루의 유통가격, 그리고 수입밀의 원곡가격과 밀가루의 유통가격을 비교하였다.

<표 7> 국내산 밀과 수입산 밀가루의 가격 비교

구분		kg 당 가격
우리밀 밀가루	밀원곡 가격(40kg)	35,690원
	밀가루가격(1kg)	2800~3000원
수입밀 밀가루	밀원곡 가격(40kg)	7,000원
	밀가루가격(1kg)	800~1,000원

자료원 :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p. 13

25)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pp 14~17

원곡에서 국산밀은 수입밀에 비하여 5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밀가루에서도 3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2차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더욱 줄어들어 1.5배~2배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이윤의 확대보다는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우리밀 생산업체별 브랜드 명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우리밀 생산업체별 브랜드 명

업체명	브랜드명	업체명	브랜드명
한국우리밀농협	우리밀 백밀가루	(주)우리밀	우리밀 백밀가루
	우리밀 통밀가루		우리밀 통밀가루
	우리밀 발아통밀가루		
원주농협	우리밀 백밀가루	함양농협	토종밀가루
	우리밀 통밀가루		
우리밀 구례공장	우리밀 백밀가루	한살림	우리밀가루
	우리밀 통밀가루		우리밀 통밀가루
한국가톨릭농민회	고운 우리밀가루	생협	우리밀 백밀가루
	구수한 우리밀가루		우리밀 통밀가루
신동방	우리밀밀가루	우리농네트워크	전환기우리밀가루

자료원 : 한국우리밀농협 내부분서, 2006. 5.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는 <표 8>에서 보여주듯 우리밀가루의 경우 백밀가루와 통밀가루로 구분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다양성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발아통밀가루와 전환기 우리밀가루 등은 차별화된 제품이지만 전환기 유기농 밀가루에 대한 인식이나 소비가 뒤따르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밀가루 품질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가공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전반적인 품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원곡의 혼재에 따른 2차 가공품 생산시 품질의 불균형문제는 유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문제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선호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흥

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표 9>은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도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표 9>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도의 변화추이

구분	1995-2001	2002-2004	2005 - 현재
구매현황	백밀가루 70% 통밀가루 30%	백밀가루 60% 통밀가루 40%	백밀가루 50% 통밀가루 50%

자료원 : 한국우리밀농협 내부문서, 2006. 5.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밀가루 구매 방식은 2001년도까지는 백밀가루와 통밀가루 판매비율이 7:3정도 비율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6:4로, 그리고 2005년부터는 5:5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변화되어 왔다. 이는 최근의 삶에 대한 방식들이 웰빙문화를 중심으로 건강과 건강한 먹거리 등을 포함한 잘먹고 잘살기라는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밀의 소비패턴 또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9>는 한국우리밀농협의 제품출하 패턴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함께 향후 제품 개발 등의 방향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의 향상을 위한 연구소 등의 체계를 갖추기에는 현재의 재정적으로나 경쟁 체계속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밀 유통구조의 한계로 나타나 있다.

5) 우리밀의 소비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소득기회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 더욱이 농산물 시장개방과 세계화 물결로 인해 농업 및 1차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되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장기화된 불황과 취업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쇠퇴하여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산물 자금 도는 25%이하로 떨어졌으며, 외국농산물 수입량은 2,190만 톤으로 약 7조 4억이며 하루에 150만 가마가(가마/40kg기준) 수입되며 202억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오는 수입개방 시대에서는 생산 위주의 농업은 쇠퇴하고 경쟁에서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 이제 수입농산물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의 생산 방식을 탈피하여 고품질과 유기농으로 차별화 하여야 하며 생산과 가공, 판매로 농촌 유희인력의 고용창출과 함께 이로 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생산 농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는 농업으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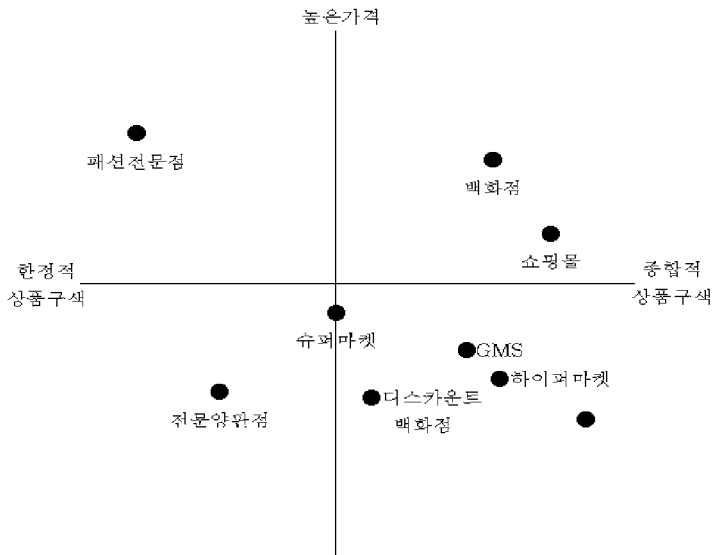
좋은 아이টে를 가지고 품질과 효능이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이를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지 못하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채 확인하기도 전에 사장되고 만다.

한 상품이 가지는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판매에 대한 홍보, 광고 등 유통에서 그 전체를 좌우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유통은 직판, 일반 대리점, 총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루트시장이라고 하는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소비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우리 농산가공품이 대형 시장에 납품되고 판매되기에는 너무나 큰 장벽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납품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생산자보다는 유통 업자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 마진보다는 유통마진의 폭이 더 크게 되어 제품값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생산이나 가공은 현장에서 할 수 있지만 판매는 전국을 상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유통전문가와 조직이 필요하다. <그림 1>은 가격대와 종합적 상품 구색을 갖춘 업체에 대한 비교 표 이다.

<그림 1> 가격대와 종합적 상품구색을 갖춘 업체



자료원 : 주우진, “신 유통업체의 분석” 「마케팅 신조류, 마이네트 편」, (서울 : 경문사, 1995), “신유통업체의 분석,” 마케팅 신조류, 마이네트 편, 경문사, 253-293.

현재 우리밀과 우리밀 제품이 각 업체간 구성원간 사이에서 작은 시장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리 밀 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밀의 모든 조직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사고가 전환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큰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밀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²⁶⁾

첫째, 위로부터의 조직구성과 운동본부의 (주)우리밀의 독점적인 지위형태는 지역단위 조직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확

26) 맹주형,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와 평가·전망” 『2001년 대의원 총회 및 CIP 발표회 자료집』 (광주: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1), pp. 34 ~ 35

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중앙조직 중심의 접근법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국 97년 운동본부 활동 침체 이후 우리밀 생산의 난맥 상황이 유발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운동사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전국조직형태의 70년대~80년대 운동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한 점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의 성과를 올리겠다는 사업작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시장에 대한 불철저한 파악을 들 수 있다. 1997년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직접적인 사업침체의 직접적인 이유는 IMF체제 내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의 대폭적 감소와 이로 인하여 그동안 누적되어온 자금 압박이 폭발하게 되었다.

셋째, 운동본부의 경영능력의 부족문제이다. 98년 농림부 식량정책국 「우리밀사업 경영정상화 특별대책방안」 문건에서는 우리밀살리기운동의 문제점으로 “전문적 경영마인드가 없이 운동차원에서 우리밀사업을 추진한 결과 판매부진 등으로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98년 4월 우리밀 재고량 알곡이 5,143톤이었고 제품이 15억8천만원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누적 적자가 82억원이며, 부채는 126억원으로 누적적자의 원인은 우리밀 관련 제품의 원가손 판매결손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수매소요자금의 증가와 매출감소로 인한 우리밀본부가 부담해야할 이자비용 또한 막대하여 수매부문 6년간 정책자금 243억원이었으며, 이자율 8%로 계산시, 20억원이 지출되고 매출감소로 인한 운영자금 차입이 최대 46억원에 이르렀으며, 일반 금융대출 이자율 12%로 연간 5억 3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는 년도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매출대비 결손액을 나타내었다.

〈표 10〉 년도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매출대비 결손액

구분	총매출	결손액	비고
1993년도	4천만원	9천만원	
1995년도	35억원	4억원	
1996년도	122억원	17억원	
1997년도	166억원	28억원	

자료원 : 맹주형,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와 평가·전망" 『2001년 대의원 총회 및 CIP 발표회 자료집』 (광주: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1), p.35

또한 알곡보관료 금리부담이 연간 11억원 이었으며, 금리만 7년간 34억원이 나 되었다. 결국 사업부문에 대한 문제점은 94년부터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우리밀 수매물량 감축 및 수매가 쌀보리가 수준으로 조절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미뤄져왔다. 이러한 경영미숙으로 인하여 결국 IMF를 맞이하여 높아진 이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넷째,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미하였던 부분도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보리나 기타 곡물 수매와 달리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민간부문 운동으로 전개하며 일정정도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수매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간차원의 수매에 따른 부담만을 관망하였다. 단지 정책자금에 대하여 8%를 제공했을 뿐이며 소비확대 측면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었다. 결국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정책자금 이율을 5%로 인하했을 뿐이며, 이자비용 8억원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고스란히 부담 지웠다.

2. 우리밀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우리밀 유통의 발전방향

(1) 자본력 확보

현재의 우리밀 유통구조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가공과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금력의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자금력 확보를 우리밀농협의 출범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밀농협이 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시기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생산에 대한 수매자금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밀농협의 출범으로 수매자금이 확보되고 생산의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기본적인 자금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가공과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자금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밀의 유통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마케팅 기법의 도입

현재의 우리밀 유통구조에 대한 특이성으로는 우리밀살리기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 온 관계로 우리밀의 독점성과 일반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반면에 이러한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미약한 관계로 그동안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나 광고의 TOOL 및 기법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원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밀의 친환경성과 웰빙식품으로서의 역할,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량으로서 우리밀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부각시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 예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린마케팅 개념이 그것이다. 그린마케팅은 사회의 가치추구가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변화해 가는 것은 시대적 조

류에 맞추어 나타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기업은 재화의 양적 생산에만 몰두함으로써 사회, 경제전반에 걸쳐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오늘날과 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 「자연의 파괴」, 「환경공해」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이제는 환경파괴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개인(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관심사가 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받고자 하는 소비자층(그린소비자)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점차로 종래의 「수익지향적 마케팅」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회당위적 마케팅」의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 의하여 마케팅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그린 마케팅의 위상적인 것이다.

(3) 소비자의 의식 및 욕구 변화에 대한 대처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욕구가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생활여건이 좋아져 자기 자신의 생활을 향유하고 쾌적한 환경, 문화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여유가 생겼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와 함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토피, 환경호르몬 등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무농약, 저농약 등을 선호하는 계층들이 주변환경오염의 심화에 따라 욕구가 커지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시장의 세분화를 부추기게 되고, 결국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소비패턴에 대한 모니터링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감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

(4) 우리밀의 그린화 전략과 기업의 위상확립

우리밀에 대한 그린화 전략에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밀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이념의 정립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자신의 기업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신뢰성 있는 외부 공중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내부의 그린화를 추구해 가는 구체적 방향으로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그 결과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교육 및 실천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전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기업차원에 기초한 우리밀에 그린화 전략을 적용해보면

첫째, 판매만을 위한 전략이 아닌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린전략 수립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이미지 상승과 판매효과가 신장된다.

둘째, 그린상품 및 환경기술의 연구에 초자와 노력을 다해야 하며, 기업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익캠페인 및 광고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은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외부공중이자 활동의 최대 변수인 소비자를 선도해 나가야 하며,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게 하면서 기업 활동에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다.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 유행적인 요구에 맞는 상품개발에 끌려가서는 안되며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각종 미디어, 또는 강연회를 통하여 인식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들의 방문 및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미지 및 제품광고에 환경보호주의 조성 및 정착기업이 환경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을 피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실천을 해야

한다. 또한 그린 상품 및 환경기술의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호의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수입증대를 꾀하게 되고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5) 정부의 우리밀 정책에 대한 대처와 식량자급율 제고 촉구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공익적인 캠페인 및 광고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과 의식의 개혁을 통해 녹색상품, 친환경기업에 대한 수준높은 안목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2) 우리밀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방안과 정책제언

(1)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방안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차액보상제와 장기적으로는 직접 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밀이 제2의 주곡임을 감안하여 밀에 대한 이중곡가제를 운영하여 정부 매도가격(96년의 경우 60kg당 2,363엔)의 약 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국산밀을 매입(9,110엔)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품질개선 장려금, 유통개선장려금, 전작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²⁷⁾

둘째, 우리밀과 관련한 각종 육성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현재 보리 소비량 연간 1.6kg으로 밀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이중곡가제 정책 장려재배, 공매 방출시 가마당 약 7,000원의 차액 보전 등 정책적 증산 대책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밀은 보리보다 우수한 재배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작물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27)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5년 우리밀생산자교육 자료집』 광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005. 12. P. 11.

셋째,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밀 수매가를 최소 쌀보리 가격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넷째, 농협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기별 생산관련 공지·수매·지역별 품종 공급·품종별 적재 보관 등이 필요하다. 현재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중앙회의 공문을 통한 수매와 종자공급 일정 공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일선 농민들에게까지 전달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을 공급하여야만 그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는 일부지역만 파악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섯째,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밀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산·소비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산밀의 품종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농협차원에서 품종별 종자공급과 수확,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밀 제품의 경우 보리와는 달리 밀 품종에 따라, 밀로 만든 가공 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고 있다. 즉 제빵용을 만들 경우, 밀 품종을 금강밀을 사용해야 하며, 제면용에는 그루밀 등이 좋은 것이 그 예이다. 그동안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진행되어오는 과정속에서 민간부문에서 국산밀을 살리며 지역별로 일정수준의 품종별 관리와 제품가공을 이루었는데, 1998년 농협으로 이관된 이후에 다시 국산밀의 품종별 관리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산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밀 제품의 품질도 중요한 관건이기에, 품종별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밀의 확대재배를 위한 정책제언

우리밀의 확대 재배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밀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고려한 양곡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식량 위기시 유희 농경지 100만 ha 생산화를 위한 종자용 밀 15만톤을 비축하는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셋째, GM(유전자 조작) 밀 등이 개발되더라도 우리밀의 안전성을 고려한

소비자 incentive 제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협력사업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빵용밀을 생산하여 남한에 공급하고, 남쪽에서 국수용 밀을 생산하여 북한에 공급함으로써 남북한이 WIN-WIN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추진 중인 농협 계약체계를 수요예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한 우리밀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답리작 2모작 재배시 논의 공익적 기능과 맥류 재배의 공익적 기능인 인산 및 아황산가스 흡수 및 산소 배출을 통한 대기 정화기능을 고려한 직불제를 상가적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경관 보존 직불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2005년부터 탄산가스 저감을 위한 교토의 정서 발효로 탄산가스 저감효과와 산소 방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CO₂ 저감시 비용을 받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밀의 유통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는²⁸⁾

첫째, 산지 생산자 조직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장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핵심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려면 생산지역의 밀 원곡을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준에 맞게 표시인증을 받아 출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차별화된 브랜드화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및 농·소·정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소·정 협력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생산 현장 체험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친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에 『직거래 자금 지원 및 산지와 소비

28)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친환경농업과 유통” 「생산과 협동을 위한 21C 농업전망과 우리밀 운동의 과제」,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 2003. 11).

자』를 연계한 회원제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이 시급하다.

여섯째, 농협 하나로 클럽 등 대형 유통센터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를 성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림부의 농산물 통합 쇼핑몰 등과 연계한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의 유통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요즘들어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밀린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의 유통은 유기농업적 사고에 의한 민간조직의 운동적 출발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출발한 한 살림운동을 비롯한 가농의 생협활동, 기타 자발적으로 태동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운동이 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백화점등 일반유통시장에서도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산 및 유통 대책이 절실 요구된다.

IV. 결 론

우리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가꾸는 농민들의 희망이다.

정부는 우리 밀에 대한 조그마한 정책이라도 가져야 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소중한 식량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밀의 가공과 판매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며, 농민의 땀과 희망, 그리고 양심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모범을 창출하는 길이다. 그럼으로써 단순한 유통적 가치의 기능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밀의 공익적 가치는 더 빛을 발 할수 있다.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우리밀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는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Approach)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점들이 곧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가 된다. 즉 우리밀의 일반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도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밀의 생산과 가공, 유통라인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연구 및 결과도출을 할려고 했으나, 자료의 수집에 대한 한계와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틀에서 연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미시적인 시각에 치우쳐 한편으로 편향된 시각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밀의 생산 및 가공, 유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일본의 사례는 차이가 워낙 커서 초기계획

에는 비교분석 할려고 하였으나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 관계로 신지 않았다.

향후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나 식량자급을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나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운동으로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명자, “한국에서의 환경운동의 등장과 전개” 「동서양의 과학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1991
- 김무열, 「교실밖 과학이야기 - 한국의 자랑 앓은뱅이 밀」, 전북일보 기사, 2005.
- 김완배, 「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 2005.
- 김정곤,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개요” 『최고급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광주: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2
- 남중현,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한 우리밀 생산 방안” 『2005년 우리밀생산자교육 자료집』 광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005. 12
- 남중현, “농업의 여건변화와 우리의 대응” 「2005년도 한국우리밀농협 1차 임운 및 대의원 워크숍 자료」
- 남중현, “식량자급과 우리밀”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우리밀 공청회」,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005. 9.
- 맹주형, “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역사와 평가·전망” 『2001년 대의원 총회 및 CIP 발표회 자료집』 광주: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1
- 외무부, “세계무역기구 협정관련 국내법 정비현황”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심의 경과 및 관련자료」, 외무부 : 1994. 12
-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친환경농업과 유통” 「생산과 협동을 위한 21C 농업 전망과 우리밀 운동의 과제」,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 2003. 11.
- 이성근, 배수현, 『새유통관리론』, 서울 : 현양경영사, 1998

이정찬,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5년도 우리밀 생산자 교육」, 2005.

장종익, “우리밀농협 설립방향과 생산자의 역할” 「변화와 도약을 향한 2002년 하반기 우리밀 생산자 워크숍」,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2002. 11.

정성현, “우리밀 농협의 방향과 과제” 「2005년도 한국우리밀농협 1차 임원 및 대의원 워크숍 자료」

주우진, “신 유통업체의 분석” 「마케팅 신조류, 마이네트 편」, 서울 : 경문사, 1995, “신유통업체의 분석,” 마케팅 신조류, 마이네트편, 경문사

최강은, “농협의 위치와 지도자의 역할” 「2005년도 제2차 임원 대의원 워크숍 자료집」

최성호, “개방화 시대의 농민의 살길” 「2005년도 우리밀 생산자 교육」, 2005.

최지현, “우리밀살리기운동의 현황과 과제” 「식량자급률 목표지 설정 방안에 관한 토론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6. 2.

최지현, “식량자급률 목표와 우리밀 산업의 정책방향” 「2005년도 제2차 임원 대의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국내산 밀브랜드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2006. 5

힐러리 프렌치, “무역과 환경의 화해”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 도서출1판 따님, 1993

<http://crop.nics.go.kr/main.asp?m=6&s1=34&s2=90>, 호남농업연구소 작물과학원 nics online 홈페이지 작물정보센터.

<http://crop.nics.go.kr/main.asp?ran=68698&m=6&s1=34&s2=0>, 호남농업연구소 작물과학원 nics online 홈페이지 작물정보센터.

<http://blog.naver.com/hhj31?Redirect=Log&logNo=30003940786> 대구경북우리밀 홈페이지, 우리밀의 일반영양 성분.